

할 일은 많고 갈 길도 멀다. 하지만 우리는 의사다

의사는 항상 뒤에 선생(님)이라는 말이 붙는다. 선생님이란 뜻은 남을 가르치는 사람을 일컫기도 하고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일컫는 호칭이다. 우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남자의 경우 38개월의 국방의 의무와 펠로우 과정을 거치고서 의료전문가로 사회에 발을 내딛는다.

우리가 배웠던 의학은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그 에 대한 기쁨과 보람을 갖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은 그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였고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대통령들의 정책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역할에 따라 의사의 행위 자체에 영향을 받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나에게 의사란 직업은 전쟁터의 적십자처럼 정치적, 경제적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리지 말고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배, 동료 의사들이 거리에 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좋지 않은 일로 뉴스와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의료와 관련된 우리의 역할이 진료행위로 국한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하여 무엇인가 다른 것 같고, 틀린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들면서 나의 진료 행위에 의심이 들 때 이번 보건의료행정 고위과정을 알게 되었다.

보건의료행정 고위과정은 1주 보건의료행정 고위과정의 소개, 2주 보건사업 기획, 3주 보건의료의 법률문제, 4주 공공의료의 인식, 5주 조세정책, 6주 보건행정과 미디어, 7주 의료급여, 8주 보건의료와 여론, 9주 지역재난과 위기관리, 10주 의사소통의



차 우 현

김천의료원 비뇨기과 과장
msta1004@gmail.com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경북김천에서 매주 참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그 내용은 학교 다닐 때 배웠으면 더 좋았을 만큼 유익했고 내 자신에게 부듯하면서 여러 강사와 선생님들께 감사하였다.

10주간의 교육과정 중 구체적인 몇 가지를 언급해 보았다. 보건의료행정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면서 그에 대한 조직, 인사, 예산조달, 감사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의료진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쟁이 필요한 곳에서는 평판도 조사를 해야 한다. 병원은 지역주민 전체에게 인정받는 병원,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병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병원, 필요할 때 가고 싶은 병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잘 이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공익성과 경쟁력이 있는 공공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담 감소, 차별 없는 이용,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 효율적 예산사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재

난상황이 발생 시에는 공공이 중심이 되어 민간이 협력을 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예비 자원과 surge capacity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최신 의료지식으로 무장하고 환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부당한 의료방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예견과 결과회피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의료과실로 판단되어 진다고 한다. 주의의무의 객관적 판단기준은 통상적 의료인 또는 평균적 의료인이 진료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시인되고 있는 임상의학으로 시행되어진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의학의 발전에 따라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인 임상의학이 변화하기 때문에 의학공부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형사소송의 경우 과실여부를 확인하려 할 때 법적 의무와 윤리적 의무를 구별하여 선불리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말아야 하고 수사기록은 만사재판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서 작성 시에는 내용을 철저히 확인 후 서명날인하고 필요시에는 변호인의 입회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뢰받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미국이 national survey로 HCAHPS(hospital consumer assessment of healthcare provider and systems)를 근거로 병원에 질 향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소비자관점에서 병원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대형병원부터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경험은 환자의 입장에서 치료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의료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환자에게 안전한 치료, 양질의 진료와 함께 환자의 만족을 높이는 것이다. 환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임소라 비엔에스 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1. 환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2. 경

청과 공감 3. 체계적 설명을 언급하며 진료실 안에서 환자와 공감을 이루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논리적인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 및 보호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능력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리더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칭찬과 질책을 구분하여 적절히 사용하고 콘텐츠의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인터뷰에 응할 때는 단정한 용모와 충실한 내용이 중요하고 인터뷰이의 태도에 따라 보는 이에게 호감의 정도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맞는 손의 모양, 인터뷰어의 응시, 카메라의 응시, 특정 공간 응시 등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브리핑을 할 경우에는 편안한 자세로서 있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대중연설을 할 때는 청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의료에 대하여 보수 입장에서 진보를 바라보는 견해와 진보 입장에서 보수를 바라보는 견해를 같이 아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고위과정의 목적이라고 했다. 의사에게 정치적 성향은 색깔론처럼 거부감을 느꼈기에 교육을 받는 초기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으나 지난 10주간의 수업은 내가 얼마나 안일하게 외래, 수술방, 병실에서 자기도취에 빠져 살고 있는지를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3대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싶다면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아들과 딸에게 미래의 동업자로서의 흐뭇한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는 나의 할 일을 해야겠다.

〈참고문헌: 제3기 보건의료행정 고위자과정 강의자료〉